

“1만원에 결혼식 올려요” 광주 ‘공공예식장’ 주목

시청 ‘빛의정원’·장미공원 등 개방 내달부터는 전남도민도 이용 가능

최근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 공간이 예비부부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청사 내 잔디광장, 1층 시민홀, 장미공원 등 공공공간을 ‘도심 속 예식’ 장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료는 야외광장 등 실외의 경우 1일 1만원, 실내는 2시간 당 1만원(생난방비 별도) 수준이다.

예식 공간에는 주차장, 화장실, 전기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꽃장식과 테이블 등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시청 잔디광장, 1층 시민홀, 장미공원 등 공공공간을 ‘도심 속 예식’ 장소로 개방 운영.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청 1층 시민홀, 빛의 정원. <광주시 제공>



예식 소품은 신청자가 직접 준비할 수 있어 개성 있는 결혼식 연출이 가능하다.

또 구내식당을 활용한 간편 식사(국수 1인 5천 원) 제공으로 피로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야외 케이터링도 가능하다. 기상 상황에 따라 실내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갖췄다.

예식 신청은 예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가능

하며 하루 1회 예약제로 운영해 여유로운 예식 진행을 지원한다.

예약은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공유누리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안전과 행사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실제 시청 ‘빛의 정원’은 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총 8개 팀이 100~400명 규모의 예식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주말·공휴일에도 공간을 개방해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5월부터는 이용 대상을 전남도민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인재교육원 후생관과 무등산 생태탐방원 등에서도 공공예식 자원이 운영

되고 있어 예비부부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광주는 결혼서비스 비용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고 상승률도 세 번째를 기록하는 등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광주시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는 704명으로 14.7%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결혼 관련 비용 상승으로 예비부부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예식 활성화는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길상 총무과장은 “높아지는 결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에게 ‘빛의 정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결혼 문화를 확산 시키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 21개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도, 405개소 합동 위생점검

전남도는 6일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개소(5.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다양한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점검 내용은 소비 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 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영업자·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33%), 폐기물용기 뚜껑 미비 7건(33%),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5건(24%), 기타 조리실 내부 청결 위반·식품 보관기준 위반 등 2건(10%)이다.

전남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에 나서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여겠다”며 “특히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성장 시기에 맞춘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가 6일 오전 봉선동 남구문화정보도서관에서 시작돼 어린이들이 예뻐 담긴 책 꾸러미를 전달받고 있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는 0-18개월, 19-35개월, 36개월-취학 전 등 연령대별 책 2권과 물품으로 구성됐다. /조영권 기자

광주 신창동 마한유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유아·초등생 대상

광주시 역사민속박물관은 6일 “신창동 마한 유적체험관에서 유아·초등생과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내 철기시대 국가인 마한과 마한사람들의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아 대상 단체 프로그램으로는 신창동 유물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담은 바람-신이·장이·동이와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과 영상감 지질 특성을 신창동 마을 유적과 연결해

배울 수 있는 ‘강에서 시작된 마한 이야기’를 운영한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악기연주·요리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준비했다.

조물조물 찰국기 만들기(4월11일), 마한의 꼬마 악사2(4월25일), 동동동 울리는 마한의 리듬(5월9일) 등이다.

프로그램별 운영 시간과 참가비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062-954-6794)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광주시청 바로예약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변은진 기자

민주, 박성현 광양시장 경선후보 자격 박탈

불법전화방해의...김태균·정인화 2인경선 차 “당 결정 수용...시민 심려 끼쳐 죄송”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전화방해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현 광양시장 경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6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날 밤 늦게 박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김태균·정인화 후보 간 2인 경선을 통해 광양시장 후보를 선출기로 했다. 광양시장 후보 경선은 이날부터 7일까지 국

민참여정선(권리당원 50%+안심번호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전화방해를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박 후보 등 15명을 고발했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 3일 불법전화방해에서 13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선 운동을 하던 현장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총책 A씨가 경선운동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78만원을 수거했다. 또 경선운동원 명단이 기재된 자원봉사자 명부와 입당원서 사본 8천600매, 선거인별 지지

성향 분석자료, 5만4천여명의 명단이 포함된 전화번호부 등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 박성현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예비후보는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도 “경선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언론 보도만 보고서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도 없이 초스피드로 내려진 당의 처분이 민주 정당의 올바른 시스템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양시원·광양=양홍렬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